19일 광주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16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8강전 장충고와 선린고 경기. 3회초 장충고 3번 정성민의 외야플라이때 스타트를 끊은 2루 주자 사공엽이 3루에서 세이프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유경국 완벽투, 동성고 4강 이끌어

제16회 무등기 고교야구

9이닝 2피안타 1실점 진흥 강타선 틀어막아

장충·개성고도 각각 동향팀 꺾고 준결 진출

진흥고 1-2 동성고

'광주 라이벌' 대결에서 동성고가 진흥고를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서울팀의 맞대결에서는 장충고가, 부산팀의 한판 승부에서는 개성고가 각각 승리했다.

동성고는 19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16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진흥고와의 경기에서 에이스 유경국의 완투에 힘입어 2-1로 승리하며 4강을 확정지었다.

동성고 유경국과 진흥고 김정훈이 맞붙은 마운드는 1회에만 각각 삼진 2개와 3개를 주고받으며 치열한 투수전을 예고했다. 하지만 2회까지 5개의 탈삼진으로 진흥고 마운드를 지키던 김정훈이 일찍 흔들렸다.

3회말 동성고 선두타자 강경선에게 2루타를 허용한 김정훈은 2사 1·3루에서 투수 겸 3번 타자로 나선 유경국에게 안타를 맞으며 1점을 내줬다. 동성고는 심의정의 중전안타로 1점을 보태며 2-0으로 앞서나갔다.

팀의 선취타점을 기록했던 유경국은 마운드에서도 완벽투구를 선보이면 6회까지 4이닝을 삼자범퇴로 틀어막았다.

7회 3루수 송구 실책에 이어 투수 실책이 연달아 나오면서 1점을 내주기는 했지만 유경국은 9이닝 동안 2피안타 4사사구 1실점(무자책)의 투구로 동성고의 4강행을 이끌었다.

장충고 4-3 선린인터넷고

'서울 더비'는 장충고의 극적인 역전드라마로 끝났다.

장충고는 이날 쫓고 쫓기는 접전 끝에 정성민의 결승타와 최영수의 쾌투에 힘입어 선린인터넷고를 4-3으로 제압하고 4강에 올랐다.

반면 선린인터넷고는 무려 12개의 안타를 터뜨리면서도 3득점에 그치는 무기력한 플레이로 장충고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특히 선린인터넷고는 두 차례의 만루 기회를 후속타 불발과 상대의 호수비로 득점과 연결시키지 못해 역전패의 빌미를 제공했다.

6회말 1사 1·2루 위기에서 마운드를 물려받은 장충고 세 번째 투수 최영수는 체인지업을 승부구로 앞세워 실점 없이 상대 타선을 봉쇄하는 호투로 팀 승리의 발판을 놓았다.

장충고는 이날 2-3으로 뒤지던 8회초 1사 1루에서 7번 타자 최용준의 좌익선상의 2루타로 동점을 이뤘다. 이어 9회초 공격에서 1사 2루의 기회를 만들어낸 장충고는 3번 정성민이 극적인 우중간 역전타로 승부를 뒤집었다.

선린인터넷고는 9회말 무기력한 공격으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한 채 4강 문턱에서 주저 앉았다.

장충고 최영수는 3과 3분의 2이닝동안 12타자를 맞아 탈삼진 5개를 뽑는 무실점의 역투로 승리투수의 영예를 안았다,

부산고 2-9 개성고

부산지역 팀끼리 벌어진 힘 대결에서는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운 개성고가 승리했다.

볼넷 2개로 2회를 시작한 개성고가 9번 박준형의 유격수 앞 땅볼로 1점을 뽑은 뒤, 4회에도 1사 2·3루에서 내야 땅볼로 점수를 더하며 2-0을 만들었다.

앞서 2점을 내준 부산고 선발 김대유가 5회 4개의 볼넷을 기록하며 또 다시 흔들렸다. 송구실책까지 범한 김대유는 5회에도 3점을 내주며 마운드를 내려왔다.

7회초 2사에서 뒤늦게 부산고의 추격이 시작됐다. 문휘람·진영호가 볼넷 두개를 골라 낸 뒤 제용진의 싹쓸이 2루타가 터지면서 부산고가 2점을 따라 붙었지만 마운드가 문제였다.

부산고는 앞선 16강에서 10이닝 완투를 한 에이스 박재현이 마운드에 오르지 못하자 김대유-최성우-이민호-박성민을 잇달아 투입했지만 봇물 터진 개성고의 타선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7회 공격에서 볼넷 2개와 4개의 안타를 곁들인 개성고는 4점을 더하며 9-2로 콜드승을 거뒀다.

7이닝동안 5피안타 4사사구 2탈삼진 2실점을 기록한 개성고 선발 최영환은 타선의 화끈한 지원속에 부산대결의 승리투수가 됐다.

/서승원·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하필 고향팀과 만나다니…

8강전 4경기중 3경기 '지역대항전' 전개돼

대회 5일째인 19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는 준결승을 향한 8개팀의 대결이 펼쳐졌다.

이날 4경기 중 3경기는 공교롭게도 같은 지역의 팀들이 맞붙으며 '지역대항전'이 전개됐다.

첫 경기는 광주지역 팀인 진흥고-동성고의 대결이었다.

부전승으로 16강에 올랐던 진흥고는 지난 대회 우승팀 마산고를 꺾으며 8강에 합류했었다.

1차전에서 강릉고와 맞붙었던 동성고는 16강에서 '장신 마운드'로 무장한 순천효천고를 만나며 이미 한 차례 지역대결을 치렀다.

속속들이 잘 아는 팀과의 승부인 만큼 경기가 진행되는 내내 양팀 덕아웃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에이스의 맞대결이 펼쳐진 이날 동성고는 1점차로 진흥고를 누르고 4강 티켓을 거머쥐었다.

두 번째 경기는 서울팀의 한판 승부였다.

장충고와 선린인터넷고 역시 한치 양보 없는 승부로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서울팀의 대결에서는 9회 짜릿한 역전극을 펼친 장충고가 웃었다.

세 번째 경기에서는 부산고와 개성고(옛 부산상고)가 4강을 다퉜다.

파란 유니폼을 차려 입은 개성고와 모자에서부터 스파이크까지 하얀색으로 무장한 부산고의 '청백 대결'에서는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운 개성고의 콜드승이었다.

'광주 더비'에서 힘겨운 승리를 거둔 동성고 윤여국 감독은 "앞서 경기를 갖은 강릉고, 효천고도 만만치 않은 상대였지만 진흥고와의 대결이 가장 힘들 것이라 예상했었다"면서도 "그동안 상대 좌완 에이스 임기준이 우리 타선에 약한 모습을 보여왔던 만큼 김정훈이 선발로 나설 것이라 생각하고 필승전략을 세웠다"고 밝혔다.

윤 감독에게는 속속들이 아는 팀과의 대결인만큼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만큼 승리를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었던 경기이기도 했다.

험난한 '지역대항전'에서 살아남은 광주팀과 서울팀은 또 다시 힘든 일전을 벌이게 된다. 동성고와 장충고는 지난 2007년 무등기 결승에서 맞붙었던 숙적.

2007년 대통령배와 무등기 결승에서 연달아 장충고에 무릎을 꿇었던 '광주대표' 동성고는 당시의 설욕과 서울팀 독주를 막기 위해 준결승을 준비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캡틴' 박지성, 인기도 캡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 1위

한국갤럽 조사…2위는 김연아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선수는 축구 대표팀 '캡틴' 박지성(28·맨체스터 유나이티드)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5월2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1천7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박지성이 34.1%의 지지를 얻었다.

'피겨 여왕' 김연아(19.고려대)는 24.1%로 2위에 올라 박지성과 김연아의 선호도 합계가 50%를 넘는 등 두 명에 대한 국민의 높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줬다.

일본 프로야구에서 활약하는 이승엽(32·요미우리)이 9.4%로 3위, 2008 베이징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박태환(20·단국대)은 5.9%로 4위에 각각 올랐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박찬호(36·필라델피아)는 5.0%로 5위를 차지했다.

상위 10위 안에 든 선수들 종목을 살펴보면 야구선수가 5명, 축구선수 2명, 피겨스케이팅과 수영, 골프선수가 각 1명이었다.

응답자 성별로는 전체 남성 중 절반에 가까운 45.1%가 박지성을 가장 좋아하는 선수로 꼽았으며 여성은 35.4%가 김연아를 가장 좋아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하 선호도 순위에서 1위가 박지성, 2위가 김연아로 같았으나 50대 장년층에서는 김연아(28.2%)가 근소한 차로 박지성(26.8%)을 앞질렀다.

갤럽은 "2004년과 비교하면 과거에 한국인에게 불모지나 마찬가지였던 수영, 피겨스케이팅 종목에서 김연아, 박태환과 같은 걸출한 스타선수들이 등장한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근호 "프랑스 간다" 日 이와타와 결별

허정무호의 '젊은 피' 스트라이커 이근호(24·이와타)가 러브콜을 보내온 프랑스 프로축구 명문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근호의 에이전트사인 텐플러스스포츠(대표 이동엽)는 19일 "이근호가 주빌로 이와타의 야나기시타 마사아키(49) 감독과 면담을 갖고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라며 "이와타 구단 역시 이근호의 의견을 존중해 이적을 허락했다"라고 밝혔다.

이동엽 대표는 "이근호가 이와타가 올해 말까지 9개월간 계약했지만 유럽에서 입단 제의가 오면 양측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구두 합의를 했었다"라며 "계약조건에 따라 이적료 없이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문유라 한국신 3관왕

세계 J역도선수권 여자 63kg급

한국 여자역도의 기대주 문유라(19·경기도체육회)가 2009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작성하며 3관왕을 차지했다.

문유라는 19일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사라폴발렌타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부 63kg급 경기에서 합계 224kg을 들어올려 2위 중국 하오젠젠(205kg)을 19kg 차로 가볍게 따돌리고 합계 정상에 올랐다.

또 인상과 용상에서도 각각 104kg, 120kg을 기록해 금메달 한개씩을 추가했다.

특히 문유라가 인상 3차 시기에서 들어올린 104kg은 김수경이 지난해 6월 세웠던 종전 한국기록(103kg)을 1kg 늘린 것이다.

올해 역도 국가대표에도 뽑힌 문유라는 이번 입상으로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도 메달 전망을 밝게 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 문유라를 포함해 모두 6명을 파견했으며 문유라는 한국 선수로 가장 먼저 경기에 나섰다. /연합뉴스

'기적같은 역전쇼' 유소연 3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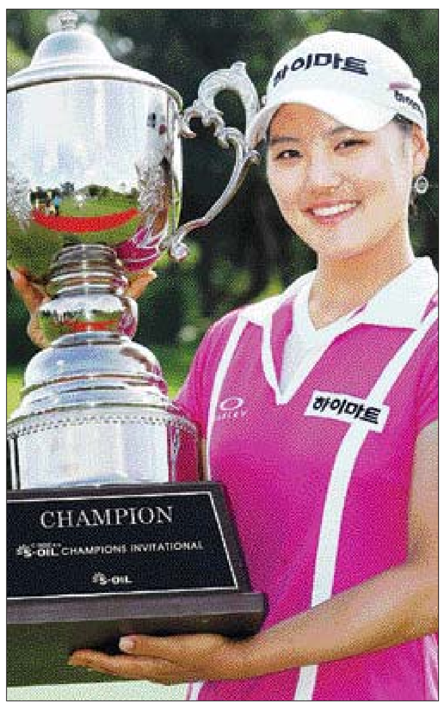
KLPGA 에쓰오일 챔피언스

유소연(19·하이마트)이 기적같은 역전쇼를 펼치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시즌 3승 고지에 먼저 올라섰다.

유소연은 19일 제주 엘리시안 골프장(파 72·6천509야드)에서 열린 에쓰오일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마지막날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7개를 쓸어담아 프로 데뷔 후 자신의 베스트 스코어인 7언더파 65타를 때려내는 맹타를 휘둘렀다.

단독선두 최혜용(19·LIG)에 8타나 뒤진 채 3라운드를 맞았던 유소연은 합계 7언더파 209타로 2주 연속 우승이자 시즌 세번째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유소연은 KLPGA 투어 역대 최다차인 8타차 역전 우승을 차지하며 6천만원을 보탠 시즌 상금 2억6천700만원을 받아 상금과 다승 부문에서 서희경(23·하이트)을 제치고 1위로 도약했다. 서희경은 합계 1오버파 217타로 공동 19위에 그쳤다.

지난 달 두산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서 유



19일 제주 엘리시안 골프장에서 열린 에쓰오일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대회에서 우승한 유소연이 트로피를 들고 있다.